

4·29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보선 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

무소속 천정배

“기득권에 취한 광주정치 이젠 바뀌어야”

4·29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선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있어서다. 야당 중심으로 꼽히던 그가 20여년간 몸을 담았던 당을 떠나 야당의 ‘심장부’ 한 복판인 광주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판도가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칼끝은 ‘진정’인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누고 있다. 그는 ‘호남정치 부활’을 외치며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천 후보는 “일당독점” 기득권에 취해 무기력해져 있는 광주정치가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지역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권교체에 실패해도 반성도, 쇄신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계파 독점 패권주의 정치가 있다”면서 “이를 깨부수지 않고서는 수권대안 세력으로 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권교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 지역 민심은 어떻게?
▲ 변화를 열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 야권을 바꿔야 한다고 격려해주는 분들이 많다. 많은 유권자들이 제대로된 야당 역할을 못하면서 자신들의 계파, 기득권만은 어떻게든 지키려 한다는 실망감에 이번 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옐로우 카드를 보내고, 전체 야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 정동영 전 의원이 서울 관악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향후 정 전 의원, ‘국민모임’과의 연대는 있나?

▲ 정 전 의원이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그렇지만, 정 전 의원의 출마문제로 의견을 교환한 적은 없다. 국민모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듯이 앞으로는 수권대안과 참여는 하지 않겠다. 새정치연합은 저와 정 전 의원 모두 야권 분열을 일으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준다고 비난하지만, 이 곳 광주는 수도권과 다르다. 새누리당은 광주에서 어부지리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저는 야권분열 세력이 아니다. 무기력한 ‘일당 독점’ 기득권 광주정치를 바꿔 달라는 광주시민들의 민심을 받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호남정치를 부활시키고, 야권을 변화시켜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겠다.



반성·쇄신 없는 새정치 계파 패권 정치 끝내야

국민모임과 연대 안해 호남정치 부활 정권교체

- ‘호남정치 복원’이란 어떤 의미인가?

▲ 호남은 역사적으로도 소외됐고, 지금도 그렇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배제돼, 경제적으로 낙후되기도 했다.

이를 극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광주정치는 무기력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패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남발전의 비전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머리만 느꼈다. 그런데 광주에 내려와 생활한지 2년 동안 이를 가슴으로 느끼게 됐다. 호남의 비전을 만들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기르는 게 호남정치의 부활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호남민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다.

호남의 비전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다. 호남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정당을 만들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인물도 키워야 한다. 일부에선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자는 것을 지역 패권주의로 매도한다. 그것은 크나큰 오해다. 오히려 호남은 지역패권주의의 피해 지역이다.

- 호남정치가 왜 무기력하다고 보나?
▲ 광주정치는 ‘일당독점’ 기득권에 취해 무기력해졌다. 새정치연합의 것만, 막대기만 쏘면 당선되었기 때문에 시민의 이해와 요구보다는 계파 출세기 정치에 열중했다. 그러는 사이 정치는 시민 대중과 멀어졌다.

호남 정치인들은 중앙 정치에서 활약이 미미하다. 호남 출신의 대권 주자 한 명 없는 상황이다. 당내에서도 영향력이 거의 없다. 이걸 전면적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타 후보와 비교해 강점이 있다면?
▲ ‘메기효과’란 어항 속에서 미꾸라지들이 활력을 잃고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메기 한 마리만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들이 메기를 피해 다니느라 생기를 얻는 현상을 기업경영에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기득권에 안주한 광주정치에 판을 흔드는 강력한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 저의 출마는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벌써 문재인 대표 등 새정연 지도부가 광주에 출동하고, 경쟁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광주시민들께서는 오랜만에 선거하는 맛을 느끼실 것이다.

- 타 후보와 비교해 강점이 있다면?

▲ 최초의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의 경험이 있다. 또한, 개혁정치에 대한 일관된 신념이 있고, 그동안 민생과 경제정의에 구현에 앞장서 왔다고 자부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주도하는 등 인권신장에 앞장선 인권변호사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부패방지 3대 법안 제정을 주도하는 등 부패 척결 제도 개선에도 앞장섰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순태 칼럼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꿈을 꾸는 동안에는 열정과 욕망,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 인생의 목표를 부자 되기로 설정하고 열심히 사는 동안에는 어떤 고통과 시련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꿈을 꾸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건강하고 활기가 넘친다. 반대로 부자가 되는 꿈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죽은 사회와 같다.

부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최근에 잡코리아와 정립출판이 조사한 것을 보면 재산이 30억 (동산10억 부동산20억)이상으로, 50평 정도 아파트에, 월 수입1~2000만원, 3000CC이상 승용차, 여가생활을 위해 골프회원권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면 국민자산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20% 안에 드는 부자들이다. 어찌 보면 20% 안에 들 정도의 부자 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여길지 모르다. 하나 취업과 결혼마저 포

과 철학이 필요하다.

부자의 이념이랄까, 돈의 철학 말이다. 부자가 되는 꿈이 사라져버린 메마르고 강파른 이 시대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부자들의 이야기는 큰 위트가 된다.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은 죽기 전에 자신의 재산 8800억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상 김만덕, 경주 최부자, 구례 윤주우 유이주,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환 씨 같은 분은, 겸손할 줄 알고 (馬善地), 나눌 줄 알고 (興善仁),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줄 아는 (正善治)사람들이었다.

우리나라 부자들 중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경주 최부자의 8가지 가훈 중에서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흥년에는 재산을 불리지 마라’ ‘사방 배리 안에서는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1950년 전 재산을 대구대학에 기증한 마지막 부자 최준은 “재물은 분노와 같아 한 곳에 모아두면 약취기 나서

부자들의 행진

기한 장미족, 오포족 등 청년실업자들 과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에게는 요원한 꿈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있었다. 고위공직자 절반이 우리나라 상위 5%의 부자로 나타났다.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가구당 평균 부채가 6000만원으로 매년 2~3%씩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작년 고위공직자 70%가 1인당 평균 9500만원의 재산이 늘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1년에 평균 1억2000만원의 재산을 불렀다. 박근혜 대통령도 2억7000만원이 증식되었다.

삼성 이견희 회장은 주식배당금으로 1800억을 받았다. 식물인간이 되어 숨만 쉬고 있는데도 주식배당금으로 엄청난 돈을 번 것이다. 수감 중인 최태원 회장도 가만히 앉아서 330억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부자의 꿈을 포기한 지 오래인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보무당당한 부자들의 행진을 보는 것만 같아 기분이 쓰쓸하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공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 돈, 죄, 사랑의 순서이다. 문제는 정당하게 돈을 벌고 아름답게 쓰는 일이다. 돈을 모으는 데도 명분

걸수 없고 골고루 사방에 흩뿌리면 거름이 된다”고 했다.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으나, 최부자 집이 300년 12대를 지켜온 데는 부자의 철학, 돈의 이념을 잘 살린 때문이 아니겠는가.

나는 어서 할아버지로부터 부자 대화 이야기를 들었다. 옛날 전주에서는 해마다 부자대화라는 것이 열렸다. 전국의 부자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자대화에는 3대째 부자부터 참가자격이 주어졌다고 한다. 당대부자는 운이 좋거나 남달리 돈 모으는 재주가 뛰어나고, 조금 불량한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며, 잘 하면 2대째까지 대물림할 수가 있다.

그러나 3대째부터는 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덕으로 쌓는 부만이 부자의 이념에 충실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부자 3대를 잊지 못한 데는 덕을 쌓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눔의 실천으로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 누구나 부자를 꿈꿀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물질적인 부자보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다행이다. 돈을 모으는 데도 명분

<소셜가>

서울대 법대 수석입학 ‘목포 수재’... 1995년 정치 입문 4선

천정배 누구인가

천 예비후보는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났다. 암태동 초등학교와 목포중, 목포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했다. 서울대 인문계 전체 수석을 차지해 ‘목포 수재’ 한 명으로 꼽혔다.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될 계획이었지만, 서슬퍼런 군부독재에 검사가 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김연장 법률사무소에서 국제관련 업무를 보던 그는 80

년대 민주화의 봄을 맞아 고(故)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열고 인권변호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던 중 1995년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를 받고 정권교체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으로 정치에 입문,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 내리 4선을 했다.

▲신안 출생(1954) ▲목포고·서울대 법대 졸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상임간사 역임 ▲법무법인 해마루 창립 ▲새정치국민회의 입당(1995) ▲법무부장관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개혁특위 원장

■ 5대 핵심 공약

- ▲ 수소에너지산업 광주의 전략산업으로 육성
- ▲ 김대중 인권평화대학원 대학교 설립
- ▲ 중앙공원 근린생활환경 조성(국립도시공원화)
- ▲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서광주~빛가람구간 조기 착공
- ▲ 제2 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

섬들의 고향 신안 Home of Islands, Shinan

신안의 꿈! 새로운 시작!

제8회 신안 튜립 축제

The 8th Shinan Tulip Festival

2015. 4. 17(금) ~ 4. 26(일)

전남 신안군 임자도 튜립공원

www.shinantulip.co.kr